

<시선>

- 지도 : 김유미 한지은 신명은
- 연출 : 엄다민 엄다영
- 출연자 : 엄다민, 오찬명, 엄다영, 오유진, 고보경, 박주영
- 등장인물 : 엄다민, 오찬명, 엄다영, 오유진, 고보경, 박주영

■ #1

암전의 무대
의자 위에 놓인 바이올린 하나가 핀 조명을 받는다.
바이올린을 들어 올려 연주를 시작하는 다영.

소리가 끊기고
다른 공간에서 핀조명이 들어오면 플루트를 연주하는 찬명.

노래 1 . 시선

플루트의 한소절이 지나면 전체 조명이 올라가며 아이들의 얼굴이 보인다.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아이들. 의자에 앉아 있기도 하고
바닥에 앉거나 서있는 등 서로 다른 공간인 듯하다.

(여)
너는 날 알까
내 마음 알까

아직도 까만 밤 나 혼자 걷네
(남)
여기 또 저기
세상을 다녀도
우리를 향한 차가운 시선
(모두)
우리는 원해
따듯한 눈빛들
차별이 없는
자유와 행복

까만 밤 지나가고 조용한 새벽 오면
내 목소리가 조금 들릴까

너는 날 알까
내 마음 알까
아직도 까만 밤 나 혼자 걷네

여기 또 저기
세상을 다녀도
우리를 향한 차가운 시선

암전.

■ #2

악기가 치워지고
3개(1개)의 의자가 더 들어온다. 놓인다.
하나의 의자에 불이 들어올 때마다 어른들의 목소리가 들린다.

목소리 1 : 학생이 이 시간에 학교는 안 가고... 왜 여기에 있니?

목소리 2 : 학교 밖 청소년? 비행 청소년인가?

목소리 3 : (어린 목소리로) 학교 안 가? 그럼 공부 안 하는 건가? 좋겠다!

어른들의 목소리가 끝나고 나면

전주가 나오기 시작한다 아주 천천히, 느리게...

노래 2. 치유 (피아노)

학생 한 명이 등장해 의자 앞에 선다.

대사.

다민 : (앉아서(변경 가능)) 흠... 유학생이었던 내가 무섭고 힘들었던 건 그 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사람들이었어. 걸어가면서 느껴지는 시선들과 소리들 때문이지... 예전에는 누군가가 조롱을 하면 그냥 참고만 지내느라 좀 힘들었지만, 좋은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잘지네. 하지만 단점이 있으면 장점도 있는 것. 어린나이에 좋은 경험이었다고 난 생각해.

다영 : (의자 앞에 서서) 지나가면 느껴지는 검은 시선... 아무런 생각 없이 쳐다보는 것일수도 있지만 그 시선을 받는 사람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 외향만 다를뿐이지 속은 똑같은 인간이야.. 다른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찬명 : () 내가 학교를 안다닌다고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차가운 눈으로 날 봤어. 처음에 한국들어왔을 때는 한국어도 잘 못했고 그런 나를 사람들이 쉽게 오해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 낮에 길거리에 나가면 사람들이 나를 보는 시선때문에 밖에 나가는 것도 무서웠어.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고 이겨낼 수 있던 나를 칭찬하고싶어. 아직까지 안 좋은 소리를 들을때가 있지만 나는 지금 열심히노력하고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안 좋은 인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걸 알리고 싶어.

유진 : () 나는 캐나다에서 처음에는 영어도 못하고 다른 애들이랑

생김새도 달라서 항상 두렵고 외로웠어.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말을 걸까봐 긴장하기도 했었고. 근데 1년 동안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 공부도 열심히 했더니, 어느새 사람들이 말하는 걸 조금씩 알아들을 수 있게 됐어.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말을 걸어줄때도 있었고 수업을 들을때도 선생님 말을 알아들을 수 있어서 좋았어.

보경 : (의자에 앉아)나는 사람들이 좀 무섭다. 지금은 친구들이 있어서 그나마 괜찮다. 인간은 서로 속만 다를 뿐이다. 다 똑 같은 사람이다. 힘들고 마음 아팠던 기억이 남아있긴 하지만 지금은 괜찮다.

주영 : (정면을 바라보고) 뉴질랜드에서 영어를 하다가, 한국에 와서 한국말, 내 원래에 언어를 말하고 듣는 삶이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유학생인 내가 두렵고 힘들어 했던 것은 언어였다. 언어는 내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데, 생각과 표현을 못 해서 힘들었고 답답했다. 또한 한국어를 말할 때 발음하는 것이 어려웠고 익숙하지 않았다. (친구들을 바라보며) 그러나, 한국에서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꿈드림’ 통해서 좋은 친구들과 만나고, 국어 수업과 검정고시 통해 한국어의 두려움과 힘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다.

아이들의 대사가 끝나면 의자를 마주 볼 수 있게 움직여 그 자리에 앉는다.

노래가 이어져 시작된다. (트랙 2번의 뒷부분)

우리는 이 세상을 아직 몰라
어른과 아이 그 사이에서
한걸음 한걸음 나가다 보면
내 행복과 자유로움 꼭 찾게 될걸

나를 봐 지켜봐 우리를 다시 보게 될 걸
나를 봐 지켜봐 우리가 도약할 다음 한 발을

아이들이 마주보며 노래를 부르다가 점차 정면을 보기 시작한다.

■ #3

전주가 나오는 동안 아이들이 의자를 정해진 위치에 놓는다.
악기로 다가가는 아이도 있다.

노래 3 . 희망

들어봐 어린아이의 노래
아주 작은 가슴에서
퍼지는 가장 큰 노래
아름다운 노래
슬픔과 분노 미움이 모두 지난 과거로 사라지고
아이들이 달려가 꿈과 믿음의 저 평온한 곳으로

*(여+여)노래하지 우리들은
따뜻한 겨울날이 모두에게 올 거야
(여all)기다리지 저 하늘은 꿈보다 경이로운 세상 보여주려고
(all)저 춤추는 세상 저 따스한 햇살
(all)친구들과 손잡고 나아갈 한걸음
(all)이 놀랍고 신비한 따뜻한 겨울

(남+남)난 기다려 이곳에서 따가운 여름가고
겨울이 찾아오길
(남all)거센 폭우 거친 바람 휘몰아치는 폭풍 흔들리는 아이들
(all)저 춤추는 세상 저 따스한 햇살
친구들과 손잡고 나아갈 한걸음
이 놀랍고 신비한
노래해 너의 따뜻한 겨울
놀랍고 신비한
노래해 우리 따뜻한 겨울

놀랍고 신비한
따뜻한 겨울

노래 후반부에 조명이 점차 밝아지며 아이들이 앞으로 나오고
한 사람씩 상·하수로 퇴장한다.

암전.